

다니엘서 - 제165번

베일을 벗는 예언의 태피스트리: 알렉산더 대왕에서 현대의 로마까지

Jeff Pippenger

2024-03-29

이제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전개된 역사를 살펴볼 것인데, 이는 538년부터 1798년에 도래한 마지막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가 일어설 때 그의 나라는 부서져 하늘 사방으로 나뉠 것이며, 그의 자손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그가 다스리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나라가 뿌리째 뽑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방의 왕은 강해질 것이며, 그의 방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또한 강해질 것이다. 그는 남방의 왕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잡을 것이니, 그의 권세는 큰 권세가 될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끝에 그들은 서로 연합할 것이다. 남방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려 북방의 왕에게 나아갈 것이나, 그녀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도 서지 못하며 그의 세력도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때 그녀를 지지하던 자가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가문에서 나온 한 사람이 그의 자리를 이어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방의 왕의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방백들, 그리고 은과 금으로 된 귀한 기구들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며, 그는 북방의 왕보다 더 많은 해를 지낼 것이다. 그리하여 남방의 왕은 그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니엘 11:4-9.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분열된 뒤, 옛 제국의 통제권을 다투던 세력들은 두 개의 주요한 왕국으로 귀결되었다. 하나는 알렉산더의 옛 제국 남부를 지배했고, 다른 하나는 북부를 지배했다. 그때부터 예언적 서술에서는 그들을 간단히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지칭한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투쟁이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대립으로만 묘사되는 지점에 이르면, 그 두 왕국을 나타내는 상징은 장 전체에 걸쳐 지속된다.

5절에서 남방 왕이 세워지고 그가 강성하나, 북방 왕 또한 강성하며 그의 왕국은 더 크다. 이어 6절에서 남방 왕은 북방 왕국과 동맹을 제안한다. 그 평화 조약은 남방 왕이 자기 딸을 북방 왕에게 주어 그가 그녀와 결혼하고 가족적 유대로 그들의 동맹을 비준하도록 함으로써 확정된다. 북방 왕은 이에 동의하여 자기 아내를 물리치고 남방에서 온 공주와 결혼하였으며, 그 동맹이 체결되었다.

마침내 남방의 공주는 사내아이를 낳으나, 결국 북방 왕은 새 아내에게 싫증이 나서 첫 아내에게 하였던 것처럼 그녀를 내치고, 다시 첫 아내를 맞아들인다. 그러나 본래의 아내가 복위되어 기회를 얻자, 그녀는 북방 왕과 그의 남방 출신 신부와 그 아이와 그들의 모든 애굽 수행원들을 죽인다. 본래의 아내가 남방의 공주와 그 아이를 살해한 이 행위는 남방 공주의 가족을 격노하게 하고, 그녀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군대를 일으켜 북방 왕국을 공격한다.

남쪽 군대가 북쪽 왕을 격파하고, 북쪽 왕과 그의 남쪽 출신 신부와 아이를 살해했던 첫 아내가 처형된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북쪽의 통치 왕으로 옹립되었던 원래 아내의

아들은 남쪽 왕에게 붙잡혀 이집트로 끌려간다. 이때 남쪽 왕은 이전 전투들에서 북쪽 왕국이 남쪽 왕국으로부터 빼앗아 갔던 이집트의 유물과 우상들도 함께 가지고 돌아간다. 이집트에 도착하자 포로가 된 북쪽 왕은 말에서 떨어져 죽는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이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절. 몇 해가 지난 뒤에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이다. 이는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그 또한 견고히 서지 못하고 그의 세력도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와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에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넘겨질 것이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왕들 사이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이집트의 제2대 왕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와 시리아의 제3대 왕 안티오코스 테오스 사이에서 그러했다. 마침내 그들은 평화를 맺기로 합의했는데, 그 조건은 안티오코스 테오스가 전처 라오디케와 그녀의 두 아들을 내치고,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의 딸 베레니케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이에 프톨레마이오스는 딸을 막대한 지참금과 함께 안티오코스에게 데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팔의 권세를 보존하지 못하리라'; 즉, 그녀가 안티오쿠스에게서 누리던 호의와 권세를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걱정에서 사로잡힌 안티오쿠스는 전처 라오디케와 그녀의 자녀들을 다시 궁정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그[안티오쿠스]도 서지 못하고, 그의 팔도 서지 못하리라'—혹은 그의 씨(후손)도. 라오디케는 총애와 권세를 회복하자, 변덕스러운 그의 성정 때문에 안티오쿠스가 다시 자신을 욕되게 하고 베레니케를 불러들일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런 사태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죽음뿐이라고 판단하여, 그녀는 머지않아 그를 독살하게 했다. 또한 베레니케에게서 난 그의 씨(자식)도 왕위를 잇지 못했다. 라오디케가 일을 꾸려 장남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에게 왕위를 확보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악함은 예언이 또한 그렇게 예고하고 이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듯, 오래도록 처벌받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7절. 그러나 그녀의 뿌리 중 한 가지에서 나온 한 사람이 그의 자리에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왕의 요새에 들어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이기리라. 8절.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은과 금으로 된 귀한 그릇들을 포로로 이집트로 끌고 가리니, 그는 북쪽 왕보다 더 많은 햇수를 지내리라. 9절. 그러므로 남쪽 왕이 그의 왕국에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베레니케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 가지는 그녀의 오라버니인 프톨레마이오스 에우에르게테스였다. 그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를 이어 이집트 왕국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누이 베레니케의 죽음을 복수하려는 열망에 불타 막대한 군대를 일으켜 북방 왕의 영토, 곧 어머니 라오디케와 함께 시리아를 다스리던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의 영토를 침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 킬리키아,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상부 지역들, 그리고 거의 온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정복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귀환을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셀레우코스의 왕국을 약탈하여 은 4만 탈란트와 귀한 기물, 그리고 신상 2,500개를

가져갔다. 그 가운데에는 옛날 캄뷔세스가 이집트에서 빼앗아 페르시아로 가져간 신상들도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에 몰두했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그들의 신들을 되찾아 준 데 대한 칭찬으로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에우에르게테스, 곧 은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뉴턴 주교에 따르면, 이것은 고대 역사가들로부터 발췌한 제롬의 기록이지만, 같은 사항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확인해 주는 현존 저자들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피아노스는 라오디케가 안티오코스를 죽이고, 이어서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이까지 죽였다고 전하며, 필라델포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살해를 복수하기 위해 시리아를 침공하여 라오디케를 죽이고 바빌론까지 전진했다고 알려 준다. 폴리비오스에게서 우리는 에우르게테스라는 별명을 가진 프톨레마이오스가 누이 베레니케가 잔혹하게 다루어진 일에 크게 격분하여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로 진군해 셀레우키아 도시를 점령했으며, 그 도시는 그 뒤 몇 년 동안 이집트 왕들의 수비대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그는 북방 왕의 요새로 들어갔다. 폴리아이노스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전쟁이나 전투 없이 타우루스 산맥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장악했다고 단언하지만, 이를 아들에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공으로 잘못 돌리고 있다. 유스티누스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국내의 소요로 인해 이집트로 소환되지 않았다면 셀레우코스의 온 왕국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남방 왕은 북방 왕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또한 북방 왕보다 더 오랫동안 생존했는데,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는 유배지에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에우르게테스는 그보다 4~5년 더 살았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250-252.

로마, 곧 북방 왕의 예언적 특징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알렉산더의 분열된 왕국 이후 첫 번째 북방 왕은, 기원전 316년부터 312년까지 잠시 프톨레미(남방의 왕)의 장군으로 복무했던 셀레우코스 니카토르에 의해 세워졌다. 5절은 이렇게 말하며 이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남방 왕은 강할 것이요, 그의 방백들 중 한 사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보다 더 강할 것이다." 프톨레미는 남방의 왕이었고, 그는 프톨레미보다 더 강하게 될 운명이었던 장군(그의 방백들 중 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구절은 "권세를 차지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큰 권세가 되리라."라고 말한다. 프톨레미의 장군 셀레우코스는 첫 번째 북방 왕이 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셀레우코스가 북방 왕이 되려면 남방의 왕과 결별해야 했고, 그 후 세 개의 지리적 지역을 정복해야 했다.

셀레우코스는 기원전 301년에 먼저 동쪽을 정복했다. 그는 이어 기원전 286년에 카산드로스의 후계자가 장악하고 있던 서쪽을 정복했고, 기원전 281년에 리시마코스를 물리치면서 북쪽에서 세 번째 영토를 차지했다. 북쪽의 왕은 기원전 281년에 왕위에 올랐다.

남쪽 왕과 나중에 맺어진 평화 조약은 기원전 252년에 체결되었다. 여섯 해 뒤인 기원전 246년에 남쪽 공주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수행원 전원은 죽임을 당했다. 그 후 남쪽 왕은 라오디케의 아들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를 사로잡아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고, 그는 그곳에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북쪽의 첫 번째 왕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281년부터 기원전 246년까지로, 35년에 해당한다.

11장에 나오는 북방의 첫째 왕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했다. 이교 로마도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했으며 [다니엘서 8:9 참조], 교황 로마 역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했다 [다니엘서 7:20 참조]. 현대 로마 또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한다 [다니엘서 11:40-43 참조].

한번 왕위에 세워진 후에, 북방의 첫째 왕은 삼십오 년 동안 통치하였다. 한번 왕위에 세워진 후에, 이교 로마는 "한 때"(삼백육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한번 왕위에 세워진 후에, 교황권 로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천이백육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한번 왕위에 세워진 후에, 현대 로마는 상징적인 사십이 달(또한 "한 시간"으로도 언급됨) 동안 통치할 것이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 다음 그녀는 31절부터 36절을 인용하며 '이 말씀들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 절들에서 교황 로마(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는 538년에 권좌에 '세워지고', 이어 1798년에 첫 번째 '진노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날 동안'(1,260년) 박해한다. 31절부터 36절의 역사는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 반복되지만, 그 역사는 또한 5절부터 9절에서 완벽하게 예표되었다.

기원전 281년에 셀레우코스가 북방의 왕으로 즉위한 사건은 538년과 상응한다. 둘 다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하는 일이 끝날 때 북방의 왕의 즉위를 나타낸다. 교황권의 통치 기간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즉 1,260일, 42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기간, 그리고 3년 반이다. 셀레우코스의 통치는 35년이었고, 35년의 10분의 1, 즉 십일조는 3년 반이다. 35년의 10분의 1은 "삼점오"(3.5)년으로도 표현된다. "3과 1/2"은 교황권의 통치 기간을 상징이다.

교황권은 1798년에 남방 왕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행운의 아들'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장군을 보내 교황을 포로로 잡게 했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799년에 교황은 유배지에서 죽었고, 남방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북방의 첫째 왕도 마찬가지로였다.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는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교황은 그 짐승을 타고 있던 자였다. 그 짐승은 교황이 자신의 사탄적 일을 이루기 위해 이용한 정치 체제를 상징했다. 그 짐승은 1798년에 죽임을 당했고, 그 짐승을 타고 그 위에서 통치하던 교황은 1년 뒤에 죽었다.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도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그가 타고 있던 짐승). 1798년과 1799년에 있었던 교황권의 포로됨은 북방의 첫째 왕의 포로됨으로 완벽하게 예표되었다.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의 진노를 사게 된 까닭은, 베레니케(남방의 신부)를 버리고 이어 그녀가 라오디케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상징되는 평화 조약의 파기였다. 나폴레옹은 1797년에 혁명 프랑스와 교황령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 조약은 이탈리아의 안코나에 있는 톨렌티노라는 도시에서 체결되어 그 이름을 따랐다. 1798년 2월 프랑스가 교황을 포로로 잡으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 조약이 무효화된 이유는 프랑스가 자신의 혁명을 확산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나폴레옹 휘하의 뒤포 장군은 1797년 당시 프랑스의 통치 정부였던 총재정부가 파견한 프랑스 원정군의 일원으로 로마에 있었다. 뒤포 장군의 로마 주둔을 포함한 이탈리아로의

프랑스 원정의 목적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프랑스 혁명군이 세운 단명한 위성국가인 로마 공화국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프랑스는 유럽 전역에서 혁명 운동을 지원하고 혁명 이념을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군주정을 전복하고 프랑스 공화국을 본뜬 공화국들을 수립하고자 했다.

뒤포의 로마에서의 주둔과 행보는 교황령 지지자들과 현지 귀족들을 포함한 보수 세력의 반발을 촉발했다. 1797년 12월, 프랑스 군대와 교황령 지지 세력 사이의 충돌 중 뒤포 장군이 암살되었고, 이로써 이듬해 나폴레옹이 베르티에 장군을 보내 교황을 사로잡게 할 구실이 마련되었다.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 사이의 파기된 평화 조약은 두 역사 모두에서 북쪽의 왕이 남쪽의 왕에게 사로잡히는 명분이 되었다.

8절은 "또 그들의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금의 보배로운 그릇들을 사로잡아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말한다. 이 구절의 성취로 프톨레미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애굽인들은 이전에 북방 왕이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던 그들의 우상들과 유물들을 되돌려준 그의 공로를 기려, 그에게 "에우에르게테스"(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칭호를 주었다. 1798년에는 프랑스에 의한 로마의 약탈이 일어났다. 역사가들은 단 하루에만도 강력한 군사 호위 아래 말이 끄는 수레 오백 대가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기록한다.

그 행렬에는 프랑스가 파기된 툴렌티노 평화조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던 막대한 수의 고대 조각들과 르네상스 회화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예술품들 가운데에는 라오콘 군상, 벨베데레의 아폴론, 죽어 가는 갈리아인, 큐피드와 프시케,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메디치의 비너스, 그리고 티베르 강과 나일 강의 거대한 상들이 있었으며, 라파엘로의 태피스트리와 회화들, 곧 「변용」, 「폴리노의 성모」, 「의자의 성모」, 티치아노의 「성스러운 대화」,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이 도난당한 보물들이 1807년에 개관한 루브르의 나폴레옹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의 일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인의 보물들을 돌려준 일로 찬양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에서 운반해 온 보물들도 나폴레옹의 이름을 딴 박물관의 한 구역에 배치되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538년에 시작하여 1798년과 1799년에 끝나는 역사와 완전한 평행을 이룬다. 그것들은 31절부터 36절까지와 일치하며, 이는 그 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현대 로마가 세 가지 장애물을 정복하면서 최종적인 권세 강화를 이루고, 마침내 도와줄 자 없이 그 종말에 이르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어서 10절은 1989년의 역사를 다룬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격분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반드시 와서 넘쳐흘러 지나갈 것이요, 그가 돌아와서는 다시 격분하여 그의 요새에까지 이를 것이다. 다니엘 11:10.

10절의 역사적 성취는 1989년을 예표하는데, 그때 교황권은 로널드 레이건과 비밀 동맹을 맺고 소련을 "휩쓸고 지나가" 통과하였으며, 페레스트로이카의 여파 속에서 소비에트 연방(USSR)이 해체됨에 따라 그 요새(러시아)만 남겨 두었다.

마지막 때에 남쪽의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며, 북쪽의 왕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다니엘 11:40.

10절의 역사는 기원전 246년에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정복한 것에 대한 보복을 나타내며, 1798년에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정복한 것에 대한 보복을 예표한다. 40절은 1798년 끝의 때에 남방 왕(무신론적 프랑스)이 북방 왕(교황권)에게 치명상을 입혔을 때로 시작되었고, 1989년 끝의 때에 소련의 붕괴로 성취되었다. 1798년의 끝의 때는 40절에서 “끝의 때에 남방 왕이 그를 부딪칠 것이요”라는 구절로 나타난다. 절의 마지막 부분을 구분하는 “콜론(:)”은 다음 “끝의 때”인 1989년을 표시한다. “그리고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 같이 그에게 맞서 올라와 여러 나라에 들어가 물이 넘침같이 지나가리라.”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모든 민족은 그들이 '감시자와 거룩한 이'의 목적을 이룰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되었다. 예언은 세계의 위대한 제국들—바벨론,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흥망을 그려왔다. 이들 각각에 있어서도, 더 약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되풀이되었다. 각각 시험의 때가 있었고, 각각 실패했으며, 영광은 바래고 권세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했다. . . .

성경의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한다. 바벨론은, 그 권세와 장엄함—그 후로 우리 세상이 다시는 보지 못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견고하고 영구해 보였던 그 권세와 장엄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 없어졌다.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사라진다. 오직 그분의 목적과 결부되어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만이 견딜 수 있다. 그분의 원칙만이 우리 세계가 아는 유일하게 확고한 것이다. 교육, 177, 184.